

2022
고2 문학
해냄

고2 문학 해냄 | 4(1)(2) 정석가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이 시의 표현상 특징과 구성, 시어나 시구의 해석과 그 의미,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고려 속요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본으로 1연과 6연의 표현 방법이 다른 연과 다르다는 것,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반어법과 역설법을 활용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오와지이다

(나)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논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논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히오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두(接柱)하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문 하를 외오곰 녀신들
즈문 하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 작자 미상, 「정석가」

1. 위의 노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3·3·4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음보율, 각운의 음위율을 모두 사용한 전형적인 정형시이다.
-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치부되어 사라진 대표적인 작품이다.
-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로,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향유되었던 장르이다.
-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임과 이별하겠다는 표현은, 결국 이별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삶의 애환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기-승-전-결’의 구성을 사용하여 세련된 형식미를 보이고 있다.

2. ㉠~㉣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과거의 임금이 살던 시대에 살고 싶습니다.
- ② ㉡: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 벼랑에
- ③ ㉢: 그 꽃이 겨울에 피어서야
- ④ ㉣: 무쇠로 철릭을 바느질을 하여
- ⑤ ㉣: 천 년 동안 함께 살아간들

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나올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연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다)는 결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사에서 했던 말을 요약하고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맺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수미상관의 구성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연마다 마지막 행에 후렴구가 있어서 장르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뜻이 분명한 후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② 자연물을 통하여 삶의 비애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고려인의 우울한 분위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으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고 있다.
- ⑤ 불가능한 상황을 통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5.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 「서경별곡」에도 유사한 구절이 들어가 있다.

- ②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한 구절로 보아 고려 속요의 민요적 특징을 알 수 있다.
- ③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 ④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앞 연과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6. ㉠~㉣ 중 그 기능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장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여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4음보를 기본으로 하는 민요적 율격이 특징이다.
- ④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기록되었다.
- ⑤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8~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

(나) 삭삭기 세물애 ㉢별해 나눈
삭삭기 세물애 별해 나눈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유덕(有德)헌신 님물 여히[㉣]와지이다

(다) 옥(玉)으로 련(蓮)시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이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두(接柱)하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라)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털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마)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바)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믄 하를 외오곰 녀신들
즈믄 하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 작자 미상, 「정석가」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사 부분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며 첨가되어 통일성을 주고 있다.
- ② 본사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본사 부분은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어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④ 본사 부분은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⑤ 결사 부분은 「서경별곡」과 유사한 구절이 있어 고려 가요의 민요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이 노래의 제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절이 있다.
- ② (나):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역설법과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라): 음악성이 느껴지는 율격에서 민요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마):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졌다고 여겨진다.

10. ㉠~㉡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한 것은?

- ① ㉠: '징이여 돌이여'로 풀이되며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 금석(金石)과 같이 굳다는 뜻이다.
- ② ㉡: '벼랑에서 나는'으로 풀이되며 극한 상황에 몰려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 ③ ㉠: '씩이 나시어'로 풀이되며 임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 ④ ㉡: '그 꽃이 추운 겨울에 피시어'로 풀이되며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뜻한다.
- ⑤ ㉡: '이별하고 싶습니다'로 풀이되며 위에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11. (바)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장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변함없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은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의 개념 A, B를 통해 윗글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A: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한 듯하지만 표면적인 논리를 떠나 자세히 생각하면 근거가 확실하거나 진실된 진술 또는 정황을 일컬음.

B: 겉으로 나타난 말과 실질적인 의미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결과로서, 겉으로 하는 말이 내용적으로 의도된 뜻과 다른 경우에 생기는 경우를 일컬음.

- ① (가), (나)와 달리 (다)~(바)에서는 A의 표현이 연속하여 등장한다.
- ② (가)와 나머지 연의 시상이 대립하는 A의 구조로 인하여 (가)의 내용이 더욱 강조된다.
- ③ (라), (마)의 1~5행에는 B가, 6행에는 A가 쓰여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한층 부각한다.
- ④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는 B 표현은, 불가능과 가능한 괴리로 인한 시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 ⑤ (나)에서 (마)로 갈수록 소재의 강도가 강해져 A 표현이 환기하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굳건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13. (가)~(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전체 연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이 노래가 의식요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위 노래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가)를 서사로, (나)~(마)를 본사로, (바)를 결사로 나눌 수 있다.
- ③ (나)~(마)에서는 소재만 달리하여 영원한 사랑을 희망하는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마)에서는 후렴구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노래의 원작자는 귀족 계층임을 알 수 있다.

- ⑤ (바)는 다른 노래의 가사와 유사한 부분으로, 당시 이와 같은 구절이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14~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으와지이다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는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는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를 여히으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두(接柱)흐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돌
구스리 바회에 디신돌
긴히든 그츠리잇가

㉠ 즈믄 ㅎ를 외오곰 녀신들

즈믄 ㅎ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 작자 미상, 「정석가」

14. 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소를 키우는 목동이다.
- ② 화자는 나무에 연꽃을 새기고 있다.
- ③ '털릭'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남성이다.
- ④ 화자는 구운 밤에 움이 돌아 싹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화자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깨지더라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5. ㉠~㉤의 현대어 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선왕이 다스리던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습니다.
- ② ㉡: 사삭사삭 새벽 무렵 별에서 나는
- ③ ㉢: 옥(玉)과 같은 인연을 사귀입니다.
- ④ ㉣: 무쇠로 만든 소 한 마리를 데려다가
- ⑤ ㉤: 저무는 해를 외롭게 보내신들

16. 윷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2연에서 5연까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②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임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설의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 ④ '유덕헌신 님 여히으와지이다'와 같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⑤ 소재가 '밤', '옥', '철'로 바뀌면서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

17. 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삭삭기 세물애 별헤'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한다.
- ㄴ. '유덕헌신 님을 여히으와지이다'는 통일성이 결여된 구절로, 특별한 뜻이 없는 후렴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ㄷ. '구슬리 바회에 디신들'은 임과의 이별 상황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ㄹ. '신잇든 그츠리잇가'는 여음구의 사용과 의문형 문장을 활용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보기>를 참고하여 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각각 다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설정한 표현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① 화자의 의지를 과장과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1연~6연까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③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임과 헤어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밤', '옥', '철'로 소재가 바뀌면서 임에 대한 사랑의 의미와 강도가 점점 변화되고 있다.
- ⑤ 임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견고하며 임과의 이별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 윗글의 소재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연의 '삭삭기'는 '가늘고 작은'의 의미를 가진 의태어이다.
- ② 3연의 '련(蓮)꽃'은 아름다운 용모의 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③ 5연의 '털슈산'은 '화자와 임의 추억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④ 6연의 '그츠리잇가'는 임에 대한 화자의 강한 불신을 드러낸다.
- ⑤ 6연의 '바회'는 화자와 임 사이의 시련을 의미한다.

최다 빈출 유형 2

고려 속요의 특징과 이 시에 적용된 고려 속요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보기>에 고려 속요에 관한 배경지식을 제시하고 이를 이 시에 적용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분연체, 조흥구, 다른 연과 이 질적인 1연의 내용, 다른 고려 속요인 「서경별곡」과 6연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고려 속요의 전승 과정상 특성을 묻기도 하였으므로 이 글에 적용된 고려 속요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20~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

-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논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논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을 여히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뎡(接柱)흐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 (B)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 (C)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즘은 흐를 외오곰 녀신들
 즘은 흐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 작자 미상, 「정석가」

20. 윗글과 같은 고려 속요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이 구분되어 있고 후렴구가 일정하게 반복된다.
- ② 재창작되기 전의 원작자는 민중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 ③ 음악성이 느껴지는 율격에서 민요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민요가 궁중에서 재편성되어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이 강조되었다.
- ⑤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1. ㉠~㉣을 통해 고려 가요의 특징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평민들이 쓰는 일상적인 표현이 주로 쓰였군.
- ② ㉡: 후대에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추가된 내용이 있었군.
- ③ ㉢: 3음보의 음보율이 쓰여 운율을 형성하는군.
- ④ ㉣: 악절을 맞추기 위한 의미 없는 구를 넣어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표현이 있었군.
- ⑤ ㉣: 각 연이 분절되는 부분에 후렴구가 반복되었군.

22. <보기>는 위 노래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답한 학생의 답변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교사: 「정석가」는 고려 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속요입니다. 고려 속요의 형식과 특성은 어떠한가요?

- ㄱ. 연이 구분되어 있고 후렴구가 일정하게 반복됩니다.
- ㄴ. 이 노래는 구전되었다가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 ㄷ. 수미상관의 배치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ㄹ. 민요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ㅁ. 고려 중엽에 발생하여 고려 말에 형식이 완성되었으며, 향가에서 기원하여 사대부 계층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 ④ ㄷ, ㄹ ⑤ ㄷ, ㅁ

23. <보기>를 참고할 때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려 가요는 민간에서 유포·전승되다가 궁중의 속악 가사로 수용되었다.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였으나 궁중 음악으로 향유되며 시어의 상징적 의미나 노래의 성격을 달리 파악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고려 가요는 특정한 율격을 보이거나 후렴구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인 특징성을 보인다.

- ① (A)는 이 노래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어 의식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군.
- ② (B)를 통해 실질적 의미를 지닌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B)의 3음보의 율격을 통해 궁중 음악적 성격이 가미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겠군.
- ④ (C)의 ‘긴’을 남녀의 사랑에 대한 믿음 또는, 임금을 향한 충심으로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C)는 「서경별곡」에도 등장한 구절로, 이를 통해 고려 가요의 구전적, 민요적 특질을 짐작할 수 있겠군.

24. <보기>의 ㉠~㉣ 중 위 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은?

<보기>

고려 가요의 형식은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주로 드러나는 특징은 ㉠분연체로 이루어지고, 조흥구(혹은 후렴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조흥구는 주로 ㉡의미가 없이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거나 ㉣각 연의 마지막마다 제시됨으로써 내용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 고려 가요는 ㉤3음보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조선 건국 이후 고려 속요 작품 중 상당수를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불태워 없앴다. 그중 살아남은 작품들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며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정석가’ 역시 민간에서 구전되던 민요가 궁중에서 재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 ① 1연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② 1연이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임을 볼 때, 고려 속요는 귀족이 주된 창작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윗글이 민요로 불리었을 때는 ‘연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주제인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 ④ 다른 고려 속요에서 윗글의 6연과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고려 속요가 민요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윗글이 궁중에서 불리었을 때는 임에 대한 사랑을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26~27] 윗글과 <보기>를 읽고 26번과 27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고려 속요는 서민 대중에게서 널리 불리다가 점차 궁중에 편입되면서 궁중 음악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이때 일부 대목이 첨가되거나 바뀌기도 하고 반복구와 감탄구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정석가」 역시 민간에서 구전되던 민요가 궁중에서 재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의 원작자는 민중 계층일 가능성이 크고, 이 노래가 궁중의 악장으로 재창작된 이후로는 가창자 및 향유자가 상층 귀족이나 그 주변 인물로 변화하였을 것이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히으와지이다’가 반복된다.
- ②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1연이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③ ‘딩아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의 음보울에서 민요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서경별곡」의 2연과 윗글의 6연이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고려 속요가 구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⑤ 민요로 불렸을 때 ‘임’의 의미는 ‘임금’이고 궁중 음악으로 향유되었을 때는 ‘연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음악성이 느껴지는 율격에서 서사 문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3음보이면서 연이 구분되어 있고 후렴구가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고려 속요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 ③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서사(1연)는 사랑을 염원하는 작품 전체의 내용과 다르게 송축(頌祝)의 의미를 지닌다.
- ④ 고려 시대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불리다가 조선 건국 이후, 궁중 연회에서 불리면서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 ⑤ 결사(6연)의 내용이 ‘서경별곡’에도 나오는 것을 볼 때 여러 노래들이 상호 교섭하며 침식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부분이 등장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는데, 덧붙여진 내용은 전체적인 작품의 정서와 동떨어진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군신간의 총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정석가」의 6연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서경별곡」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 ① 6연은 「정석가」보다 「서경별곡」이 먼저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② 6연을 통해 당시 유행하던 구절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전해져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정석가」는 민간에서 풍속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창작된 노래로, 음악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 ④ 작품에 등장한 ‘님’이 지칭하는 대상은 민요로 불렸을 때와 궁중 음악으로 향유되었을 때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 ⑤ 전체적인 작품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1연과 6연은 민요가 궁중 음악으로 편입될 때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9.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에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로, 민요에서 형성되어 구전되어 오다가 일부는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면서 변화를 겪었고, 조선 시대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로 기록되었다. 주로 3음보 율격을 띠며 대부분 분연체이며, 후렴구나 여음구가 포함된 작품들이 많다.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아쉬움, 자연 예찬, 삶의 애환 등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 많다.

- ① 이 시는 고려 시대 평민들이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였겠구나.
- ② 1연의 ‘당금에 계상이다’의 생략된 주어는 ‘임금’으로 볼 수 있겠구나.
- ③ 대체로 3음보의 율격을 따르고 있고, 2, 4연에 동일한 여음이 사용되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구나.
- ④ 6연은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 이상적인 세계로 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한 염원이 잘 드러나 있구나.
- ⑤ 1연은 다른 연과 성격이 이질적인 것으로 보아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가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는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했다.

(信)'은 군신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므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 역할에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⑤ 6연은 표현 방법에서는 2~5연과 이질적이지만, 1행과 2행, 4행과 5행이 반복되어 전체 6행을 이루는 동일한 구성을 보이므로,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① 1연은 2~6연과 달리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궁중악으로 재창작되는 과정에서 통치자에게 올바른 정치를 간언하기 위해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2연, 3연, 5연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반영한 내용을 보면 민간에서 널리 불리던 노래를 궁중악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 ③ 2~5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는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마련한 형식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④ 2~5연의 후렴구에 있는 '덕(德)'과 6연의 '신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구운 밤에 싹이 나는 것, 옥으로 된 꽃이 피는 것, 철로 만든 옷이 허는 것, 철로 된 소가 쇠풀을 먹는 것은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자는 이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 만족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절대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진심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이다.

① '옥(玉)으로(3) 련(蓮)스고즐(3) 사교이다(4)', '므쇠로(3) 한쇼를(3) 디여다가(4)'과 같은 3:3:4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음보율을 보이고 있고 2연~5연의 3행과 4, 5행에 '~이다', '~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각운을 통한 음위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려 가요의 전반적인 특징일 뿐 이와 같은 특성을 반드시 지켜 창작해야 하는 정형시가 아니다.

② 조선 시대에 고려 속요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남녀 간의 정이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작품은 '남녀상열지사'로 치부되어 기록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는 『악장가사』에 기록되어 연회에 쓰인 작품이므로 사라진 작품이라 볼 수 없다.

③ 고려 속요는 민중이 창작한 갈래로, 구전되어 전해졌던 고려 시대에는 민중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고, 조선 시대에 궁중악으로 편입되면서 향유층이 상층 귀족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고려 속요를 왕이 향유하며 즐겼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⑤ 이 글은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을 보이고 있을 뿐, '기-승-전-결'의 구성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정답 ②

'삭삭기'는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세물애'는 가는 모래, '별혜'는 벼랑에로 해석되므로 ㉠은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 벼랑에'가 적절하다.

① ㉡은 '선왕이 다스리던 거룩한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태평성대가 현재

에도 펼쳐지기를 바라는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③ ㉢의 '삼동(三同)'은 세 묶음으로 해석되지만, '삼동(三冬)'의 오기로 보아 한겨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뛰거시아'는 '피어서야'가 아닌 '피어야만'으로 해석되므로 ㉢은 '그 꽃이 겨울에 피어야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말아'는 '마름질(옷감이나 재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는 일)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무쇠로 철릭(무관이 입던 제복)을 마름질하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의 '외오곰 녀신들'은 '외따로 살아간들'로 해석되므로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정답 ②

2연~5연의 (나)는 본사에 해당하며, 연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임과 이별하겠다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임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① (가)가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지만 다른 연과 내용이 이질적이며, 따라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다)는 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으며 본사에서 말하고 있는 '임과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형식을 달리하여 이어받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사에서는 본사의 말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④ 시의 첫머리와 끝머리를 같거나 유사하게 배치하는 수미상관의 표현 방법은 이 시에 쓰이지 않았다.

⑤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히으와지이다'의 후렴구는 (나)에만 있을 뿐 (다)에서는 찾을 수 없다.

4. 정답 ①, ④, ⑤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히으와지이다'는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 분명한 후렴구이며(①), 이는 절대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진심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구절이다.(④) 또한 구운 밤에 싹이 나는 것, 옥으로 된 꽃이 피는 것, 철로 만든 옷이 허는 것, 철로 된 소가 쇠풀을 먹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강조

하고 있다.(⑤)

② 이 시에 자연물은 쓰이지 않았으며 삶의 비애를 형상화하고 있지도 않다.

③ 이 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으로, 고려인의 우울한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5. [정답] ⑤

(다)에는 (나)에 반복되었던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라는 후렴구가 쓰이지 않았다.

①, ② (다)는 「서경별곡」의 2연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다)와 같은 구절이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구절이며, 고려 속요가 구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ㄴ 돌 ~든 그츠리잇가’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잇가’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사랑이 절대 변할리 없음을 표현함으로써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6. [정답] ⑤

‘바회’는 사랑을 의미하는 ‘구슬’이 깨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불가능한 상황을 드러내는 데 이용된 나머지 소재와 그 기능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구운 밤’, ‘련스곳’, ‘털릭’, ‘한쇼’는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활용된 소재이다.

7. [정답] ③

이 시는 3음보를 기본으로 하는 민요적 율격을 보이고 있다.

① ‘연장체’란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시를 의미하며, 이 시 역시 총 6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이 시의 2연과 4연에는 ‘나논’이라는 아무 의미는 여음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는 고려 속요이며, 고려 속요는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글로 기록되었다.

⑤ 이 글의 1연은 나머지 연과 내용이 이질적이며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정답] ①

서사 부분인 (가)는 다른 연과 내용상 이질적인 것으로 보아 고려 속요가 조선 시대에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가)에만 드러나기 때문에 통일성을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본사 부분인 (나)~(마)는 구운 밤에 싹이 나는 것, 옥으로 된 꽃이 피는 것, 철로 만든 옷이 허는 것, 철로 된 소가 쇠풀을 먹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다.

③ 본사 부분인 (나)~(마)는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④ 본사 부분인 (나)~(마)는 ‘~이다 + ~(시)아 +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와 같은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⑤ 결사 부분인 (바)는 「서경별곡」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고려 가요가 향유자 사이에 구전되었다는 민요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정답] ⑤

(마)는 형식상, 내용상 (나)~(라)와 유사하므로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부분이라 볼 수 없다.

① ‘정석가’의 ‘정’은 ‘딩(징)’, ‘석’은 ‘돌’을 의미하므로 (가)의 1, 2행은 이 노래의 제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② 가는 모래에 구운 밤을 심어서 싹이 난다는 역설적인 상황과 그러한 상황이 만족된다면 임과 이별하겠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③ 옥으로 새긴 연꽃이 세 묶음이 핀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임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므쇠로 ∨ 털릭을 ∨ 몰아’와 같은 3음보의 율격에는 민요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때 ‘나논’은 조흥구이기 때문에 음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정답] ⑤

㉠은 '이별하고 싶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표면 상으로는 바위 위에 접주한 옥으로 새긴 연꽃이 세 묶음이 피어야만 이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결국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① ㉠이 '징이여 돌이여'로 해석되는 것은 맞지만, 이때의 '딩'과 '돌'은 '경쇠'라는 금석 악기 혹은 그 악기에서 나는 소리, 혹은 사랑하는 연인으로 짐작할 뿐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 금석(金石)과 같이 굳다는 의미가 아니다.

② '별헤'는 '벼랑에'로 해석되지만, '나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흥구이므로 해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별헤 나눈'은 '벼랑에'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은 '씩이 나시어'가 아닌 '씩이 나아지만'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운 밤에 싹이 나는 불가능한 상황 중 일부일 뿐, 입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구절이 아니다.

④ ㉢은 '그 꽃이 세 묶음이 피어야만', 혹은 '그 꽃이 추운 겨울에 피어야만'으로 해석되며, 이는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 위에 접붙였을 때 싹이 나는 불가능한 상황 중 일부일 뿐 화자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11. [정답] ③

(바)에는 역설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① 1행과 4행과 같은 부정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어떠한 시련에도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그초리잇가'의 반복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② '그초리잇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입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즈믄 허물 외오곰 녀신돌'은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다는 과장적 표현이며 이를 통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화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사랑'을 '구슬'에 '시련'을 '바회'에 비유(은유)하고 있으며, 이때의 시련은 이별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2. [정답] ⑤

<보기>의 A는 역설법, B는 반어법에 관한 설명이

다. (나)에서 (마)로 갈수록 '밤→옥→철'로 소재의 강도가 강해지며 이 소재는 역설적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역설적 표현에 활용된 소재들의 강도가 강해짐으로써 임과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굳건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① 역설법(A)은 (나)~(마)에서만 사용되었다.

② 역설법은 (나)~(마)에만 쓰였으므로, (가)와 나머지 연을 대립하게 만들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가)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③ (라), (마)의 1~5행에는 반어법(B)이 아닌 역설법(A)이, 6행에는 역설법(A)이 아닌 반어법(B)이 쓰였다.

④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는 표현법은 평범한 표현을 비틀어 제시하는 표현으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반어법(B)이 아닌 역설법(A)이다.

13. [정답] ④

이 시는 구전되다가 기록된 고려 속요로, 원작자는 귀족 계층이 아닌 민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나)~(마)에서는 후렴구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원작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① (가)는 나머지 연과 형식상, 내용상 차이를 보이며, 이를 통해 이 노래가 여러 가지 의식을 거행하며 부르는 노래인 의식요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는 서사, (나)~(마)는 본사, (바)는 결사에 해당한다.

③ (나)~(마)에서는 밤, 꽃, 철릭, 소와 같은 소재만 달리하며 역설적 상황을 통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영원한 사랑을 희망하는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⑤ (바)는 다른 고려 속요인 「서경별곡」의 2연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바)의 구절이 당시 유행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14. [정답] ⑤

6연에서 화자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① 5연의 '한쇼'는 쇠로 만든 소가 쇠풀을 먹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활용된 소재일 뿐, 화자가 목동은 아니다.
- ② 3연에서 화자는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 위에 접주하여 그 꽃이 세 묶음이 피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을 뿐, 나무에 연꽃을 새기고 있지 않다.
- ③ '털릭'은 무관이 입던 제복으로, 화자는 이 옷을 '므쇠'로 만드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여성, 시적 대상을 남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④ 2연에서 화자는 구운 밤에 싹이 나면 입과 이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구운 밤에 싹이 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 의도적인 표현일 뿐, 화자가 구운 밤에 움이 돋아 싹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15. 정답 ①

- ㉠은 '선왕이 다스리던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습니다.'로 해석되며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은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로 해석된다. '나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흥구이므로 해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은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로 해석된다.
- ④ ㉣은 '무쇠로 큰 소(황소)를 지어다가'로 해석된다.
- ⑤ ㉤은 '천년을 외따로 지낸들'로 해석된다.

16. 정답 ④

- '유덕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는 역설적 표현이 아닌 반어적 표현이다.
- ① 2연에서 5연은 구운 밤에 싹이 나는 것, 옥으로 된 꽃이 피는 것, 철로 만든 옷이 허는 것, 철로 된 소가 쇠풀을 먹는 것과 같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정하고 보여 주고 있다.
- ② 2연~5연에서는 '~이다 + ~(시)아 +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와 같은 문장 구조를, 6연에서는 '~ㄴ 돌 ~든 그츠리잇가'와 같은 문장 구조를, 그 외에도 '유덕', '여히으와지이다'와 같은 시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신(信)잇든 그츠리잇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입에 대한 믿음이 번치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2연~5연에서는 소재가 '밤', '옥', '철'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입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7. 정답 ①

- ㄱ: '바삭바삭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은 어떤 식물을 심더라도 제대로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며, 화자는 이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 제대로 된 씨앗도 아닌 '구운 밤'을 심어 싹이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척박한 환경 + 구운 밤'과 같은 절대로 싹이 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을 부각하여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ㄷ: '구슬'은 '사랑'을 '바회'는 '시련'을 의미하며 사랑에 닥칠 수 있는 시련 중에는 이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슬리 바회에 디신돌'은 입과의 이별 상황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ㄴ: '유덕하신 님을 여히으와지이다'는 2연~5연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후렴구로, 통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유덕하신 입과 이별하고 싶다'라는 표현 속에 '입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진심을 담은 의미 있는 구절이므로, 특별한 뜻이 없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18. 정답 ⑤

- <보기>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설정한 표현인 역설적 표현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2연~5연에 드러나 있다. 화자는 구운 밤에 싹이 나는 것, 옥으로 된 꽃이 피는 것, 철로 만든 옷이 허는 것, 철로 된 소가 쇠풀을 먹는 것과 같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입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견고하며 입과의 이별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 ① 2연과 5연에는 역설적 상황을 통한 과장적 표현이 드러나고, 6연에는 '그츠리잇가'와 같은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만, 이는 역설적 표현을 설명하는 <보기>와 관련이 없다.
- ② 1연과 6연에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2연~5연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로 현실화될 수 없는 일을 제시하여 입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화

자의 의지를 강조할 뿐,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임과 헤어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표현이 아니다.

④ ‘밤’, ‘옥’, ‘철’로 소재가 바뀌면서 임에 대한 사랑의 의미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을 뿐, 변화되고 있지 않다.

19. [정답] ⑤

6연의 ‘구슬’은 임과 화자 사이의 사랑을, ‘구슬’이 떨어져 깨지게 만들 수도 있는 ‘바회’는 화자와 임 사이의 시련을 의미한다.

① ‘삭삭기’는 ‘바삭바삭(소리가 나는)’이라는 의미이며, ‘바삭바삭’은 의태어가 아닌 의성어이다.

② ‘련(蓮)스곳’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 소재일 뿐, 아름다운 용모의 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③ ‘털슈산’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 소재일 뿐, ‘화자와 임의 추억이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④ ‘그츠리잇가’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화자의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 임에 대한 화자의 강한 불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20. [정답] ④

고려 속요는 민요로 불리던 것이 궁중에서 재편성되어 궁중악으로 활용된 갈래이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1연과 같은 이질적 내용이 첨가되었을 뿐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이 강조되지 않았다.

① 고려 속요는 연이 구분된 분연체, 분장체이며 후렴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② 조선 시대 한글 창제 후 기록되는 과정에서 재창작되기 전에는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었으므로, 원작자를 민중 계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요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고려 속요는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 시의 1연과 같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송축의 내용이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1. [정답] ①

㉠이 포함된 1연은 고려 속요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므로 ㉠을 평민들이 쓰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② 선왕이 다스리던 거룩한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다는 내용은 나머지 연의 내용과는 이질적이므로, 후대에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삭삭기∨세몰애∨별헤’와 같은 3음보의 음보율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은 악률을 맞추고 흥을 돋우기 위해 넣은 의미 없는 구이다.

⑤ 2연~5연에서는 ㉢과 같은 후렴구를 기준으로 연이 나뉘고 있다.

22. [정답] ②

ㄱ: 고려 속요는 연이 나뉘고 후렴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ㄴ: 민중들 사이에서 불리던 민요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 시의 1연과 같이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고려 속요가 구전되어 전해진 것은 맞지만, 배경 설화는 알 수 없다.

ㄹ: 시의 첫부분과 끝부분이 같거나 유사한 수미상관의 구조는 고려 속요의 특징이 아니다.

ㅁ: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조선 시대 한글 창제 후 기록되기 전까지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었으므로 형식이 단계를 거쳐 차츰 완성되었는지 역시 알 수 없다. 또한 고려 속요가 궁중악으로 편입된 후 가창자 및 향유자가 상층 귀족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려 속요는 기록 문학인 향가에서 비롯된 갈래가 아니다.

23. [정답] ③

(B)가 3음보의 율격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고려 가요의 민요적 특성이 드러날 뿐 궁중 음악적 성격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의 궁중 음악적 성격은 (B)가 아닌 (A)에 드러난다.

① (A)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연들과 내용이 이질적이다. 이를 통해 이 시가 의식요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② (B)에는 ‘유덕(有德)ᄒ신 님 여히ᄒ와지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다.

④ (C)의 ‘긴(끝)’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깨어지더

라도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이 시를 민요로 본다면 '남녀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이 시를 궁중 음악으로 본다면 '임금을 향한 충심'으로 볼 수 있다.

⑤ (C)는 고려 가요인 「서경별곡」의 2연에도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고려 가요가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는 구전적, 민요적 특징을 알 수 있다.

24. 정답 ②

이 시의 조흥구(후렴구)는 '나눈'과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와지이다'가 있는데 '나눈'은 의미가 없는 것은 맞지만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가 아니며,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와지이다'는 의미가 없는 것도,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도 아니다.

① 이 시도 총 6연으로 연이 나뉘어 있다.

③ 2연~5연의 각 행이 반복되었으며 후렴구의 반복 역시 쓰이고 있다.

④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와지이다'와 같은 후렴구는 2연~5연에서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3음보의 음보울을 보이고 있다.

25. 정답 ②

1연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고려 속요가 조선 시대에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려 속요의 주된 창작 계층은 고려 시대의 민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1연은 나머지 연의 내용과 이질적이므로 민요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윗글이 민요로 불리었을 때는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주제인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이 시의 6연은 다른 고려 속요인 「서경별곡」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고려 속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요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윗글이 한글로 기록되어 궁중에서 불리었을 때는 이 시에서 말하는 '임에 대한 사랑'을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다.

26. 정답 ⑤

민요로 불렸을 때 '임'의 의미는 '임금'이 아닌 '연인'이고, 궁중 음악으로 향유되었을 때는 '연인'이 아닌 '임금'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① 2연~5연에는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히와지이다'가 반복되고 있다.

② 1연의 내용은 나머지 연의 내용과 이질적인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요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1연이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딩아 돌하V당금에V계상이다'와 같은 민요적 율격인 3음보의 음보울이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시의 6연은 다른 고려 속요인 「서경별곡」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고려 속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당시 유행하던 구절이 여러 노래에 실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7. 정답 ①

이 시는 3음보의 음보울을 바탕으로 한 음악성이 느껴지는데, 이는 서사 문학이 아닌 서정 문학의 특징이다.

② 3음보의 율격, 분연체, 후렴구의 반복은 고려 속요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③ 이 시는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1연은 태평성대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으므로 사랑을 염원하는 다른 연과 이질적이다.

④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에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조선 건국 이후 한글로 기록되어 궁중 연회에서 불리면서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⑤ 결사(6연)의 내용이 '서경별곡'에도 나오는 것을 볼 때, 당시 민요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당시 유행하던 구절이 추가되기도 하고 다른 구절이 빠지기도 하는 등 여러 노래가 상호 교섭했음을 알 수 있다.

28. 정답 ④

작품에 등장한 '님'은 민요로 불렸을 때 '연인'으로, 궁중 음악으로 향유되었을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정석가」와 「서경별곡」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을 통해, 당시 고려 가요가 구전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어느 작품이 먼저 창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

- 다.
- ② 또한 기록 문학은 같은 구절이 다른 작품에 있기 힘들므로, 6연을 통해 당시 유행하던 구절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전해져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이 시의 초기 창작 계층은 민중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시의 내용을 고려할 때 민중들이 풍속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이 시에서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연이며, 6연은 2연~5연과 동일하게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민요가 궁중 음악으로 편입될 때 첨가된 부분은 1연으로 볼 수 있다.

29. **정답** ④

6연은 사랑에 시련이 닥쳐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현실을 괴롭다고 여기거나 이상적인 세계를 가고 싶다는 염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① 이 시는 고려 시대 평민들이 초기 창작 계층이며, 2연~5연을 통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2연은 민요가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딩하 돌하’의 ‘딩’과 ‘돌’은 사랑하는 연인, 즉 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지금 계십니다’의 주체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
- ③ 대체로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으며 2, 4연에서는 ‘나논’과 같은 동일한 여음이 사용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이 글의 1연은 나머지 연과 내용이 이질적이며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궁중 속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 **정답** ①

1연이 나머지 연과 내용이 이질적인 것은 맞지만, 태평성대를 바라는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치자에게 올바른 정치를 간언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 ② 2연에서 밤을 심는 모습, 3연에서 꽃을 접주하는 모습, 5연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는 모습에는 민중의 생활상이 드러나며, 이와 같이 민중의 생활상이 반영된 내용을 통해 이 글이 원래 민간에서 불리던 노

- 래를 궁중악에 편입시켰음을 알 수 있다.
- ③ 2연~5연의 끝부분에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 전체적으로 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 ④ 2~5연의 후렴구에 있는 ‘덕(德)’은 ‘임’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임’을 ‘임금’이라고 해석할 때 덕을 갖춘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信)’은 화자와 대상 사이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화자와 대상을 임금과 신하라고 볼 때, 임금과 신하 사이에 믿음이 두터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덕’과 ‘신’을 말하는 이 시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⑤ 6연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는 2연~5연과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행의 반복을 통해 2연~5연의 행수와 동일하다. 이는 민요를 궁중악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6연을 2연~5연과 유사한 형태로 다듬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지정보
저자 김정혜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3148-6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20624
가격 1,500원

